

내 안의 예술 감수성이 깨어난다... '안녕! 히어로~'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서
40개 문화예술교육단체 참여
전시·공연 등 46종 프로그램

경계 없는 상상과 창작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함께하며 숨은 예술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안녕! 히어로~'가 오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아트날라리'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올해 9회째를 맞이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안녕! 히어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올해 아트날라리는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생애 전환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4개 분야 40개 광주문화예술교육단체가 함께한다.

행사는 △개막행사 '안녕! 히어로~' △폐막행사 '언제나 히어로'와 시민참여 행사(1종)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 △미션 '히어로를 찾아라!' △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안녕! 히어로~'가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아트날라리 현장. 광주문화재단 제공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전시·공연·체험 행사(39종) △지구를 위한 먹거리존(1종)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5종) 등 46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참여형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는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들이 오프닝 네트워킹에서 밑그림을 그

리고, 축제 당일 시민들이 다양한 히어로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한 클로징 네트워킹을 통해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완성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교육자와 향유자를 넘어 내 안의 '히어로'를 찾아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모두가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즐기는 시민 참여형 축제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된다.

지난 21일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참여한 △오프닝 네트워킹 '히어로! 만나서 반가워~'를 시작으로, 폐막행사 이후 △클로징 네트워킹 '땡큐~ 히어로'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광주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과 함께한다.

지난해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유아유관기관협의회에 속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다.

또 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에 속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서구문화원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협력 참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구'를 위해 '용기'낸 당신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개인 캡, 용기 등을 지참하도록 독려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

공연 및 전시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12시 30분부터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062-670-7452)로 문의하면 된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아트날라리는 올해 9회차를 맞이한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교육축제다"며 "올해 펼쳐질 '안녕! 히어로~'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 내 안의 숨은 예술 감수성을 깨우는 영웅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예술교육 사업 '동구 보물탐험대'를 운영했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동구 보물 탐험대', 문화탐험 대장정 성료

동구 문화·예술·생태 등 체험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미래세대를 위한 특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동구 보물탐험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동구 보물탐험대'는 광주 동구의 매력을 대표할 수 있는 9가지 보물과 근현대적 문화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미래 유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22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각 주제에 맞는 현장을 직접 탐방해 아이들이 동구 9보와 미래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교육을 위해 개발한 보드게임과 메모리카드 게임도 함께 진행돼 아이들의 흥미를 더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동구 보물탐험대' 키트 게임을 하며 동구 9보에 관해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동구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동구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창의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일상 속 예술적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극장 등을 주제로 한 탐방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박찬 기자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구청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대상'

김윤희 씨 외 10명 출전
라인댄스 단체전 최고 영예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라인댄스 스타일링반 수강생들이 2024년도 제7회 광주시 동구청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및 전국 실용무용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광주대 평생교육원 라인댄스 팀(지도 강사 조미숙)은 최근 광주 동구청 본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김윤희 씨 외 10명이 라인댄스 부문 단체전에 출전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희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광주대 라인댄스 스타일링반 수강생들이 '2024년도 제7회 광주시 동구청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및 전국 실용 무용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대학교 제공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소리꾼 김다정 명창 '因緣-하늘이 맺어준 인연'

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김다정 명창의 완창발표회 '因緣-하늘이 맺어준 인연(사진)' 공연이 오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김다정 명창은 전주 우석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 이사, 국악그룹 SO.소리 대표, 김다정 판소리 연구소 대표, 국악그룹 소리메타나래 단원, 광주예고, 전남예고를 출강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보성소리 동편제 김세종판 조상현류 춘향가'는 조상

현, 주소연, 김다정에게 전승된 춘향가로 그 짜임이 섬세하면서도 굵고 선율이 미려해 예술·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소리다.

2024년 보성소리축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다정 명창은 "이번 완창 공연 무대가 더 뜻깊고 남다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할 고수는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적벽가 이수자이며 대전시 지정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인 박근영 명고와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 및 고법 이수자 임영일 명고,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수자 김준영 명고가 맡았다. 사회는 이해연씨가 맡는다.

박찬 기자



김다정 소리꾼 내한에 완창사막 보성소리 동편제 김세종판 조상현류 춘향가 완창발표회